

# 한국인의 주거양식에 의한 지역구분 시론

옥한석<sup>1</sup> · 신영근<sup>2</sup> · 정소희<sup>2</sup> · 우지은<sup>2</sup>

<sup>1</sup>강원대 교수, <sup>2</sup>강원대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

## 1. 서론

「2000년 인구 및 주택 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에서 단독주택 가구가 40.38%, 공동주택 가구가 58.79%를 차지하고 있다.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으로 이루어진 공동주택이 이제 우리의 일상적인 주거양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공동주택 주거양식은 현대적인 생활양식으로 우리의 보편적인 주거형태이며 대도시뿐만 아니라 중소도시의, 심지어 면 소재지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주요한 주거 공간이 되었다. 이러한 현대적인 주거 생활은 도시화의 상징이자 도시 생활양식의 확산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다.

이 연구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한국인의 주거양식에 의하여 지역구분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우리의 생활에 대한 지리적 탐구 시도로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지역구분이 행정경계, 자연지리적 경계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 실상을 알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연구 주제를 세분할 수 있다. (1) 현대적인 공동주택 주거양식과 현대적인 단독주택 주거양식의 특징을 여러 문헌 조사에 의하여 살펴본다. (2) 「인구 및 주택 조사」 자료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시군별 비율을 지도화하여 그 분포 패턴을 살펴본다. (3) 그 분포 패턴을 가지고 지역 구분을 시도해 본다. 「2000년 인구 및 주택조사」 자료에 나오는 시, 군별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비율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 하여 지역구분을 하게 된다. 이들 주택의 분포비율은 30%, 60%가 통계적으로 등간격을 이루고 분포상의 뚜렷한 구분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주거양식이라고 하는 말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생활 방식으로 그들의 주택 유형에 따라 교육, 여가, 오락, 서비스, 쇼핑 등 활동이 공간적으로 특징이 나타난다고 본다.

## 2. 현대적인 공동주택 주거양식

가정생활이 이루어지는 주거지는 오래된 단독주택들이 밀집한 지역과는 달리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로 구성되는데 이 아파트 단지가 공동주택이다. 이 공동주택가는 학교와 식품을 비롯한 일용품과 파는 작은 상가들이 주변에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소비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층적 변이에 따라 그 외향적인 모습뿐 아니라 주민들 사이의 사회관계에서도 영향을 미쳐 다양한 사회적 환경을 형성하게 된다. 최근에 서울에는 신홍 대단지 아파트 공동주택 지역이 주를 이루는 강남지역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이러한 서울의 아파트 지역에서는 사교와 의례적 접촉, 상부상조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익명성을 가져와 도시민의 사회생활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아파트단지에서 발견되는 이웃관계는 개인성에 바탕을 둔 이차적인 관계보다는 비교적 친근한 관계를 갖는다. 비록 관주도적이기는 하지만 주민 모임인 반사회등이 정기성을 가지고 있고 여성들이 주로 참석함으로써 지역사회생활을 위한 여러정보들이 교환되는 장소의 역할을 하게된다. 그 외에도 비공식적인 관계가 보통 일상적인 접촉과 작은 선물이나 관심, 친절 등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폭은 교회나 성경공부모임 등 공동의 관심사를 통하여 아니면 성격이나 취미 등이 유사한 데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며 주부들, 특히 핵가족이 보편적인 아파트 단지의 주부들에게 있어서는 일상생활을 꾸려 가는데 있어 매우 소

중한 관계망의 하나를 구성한다. 이들 관계망 내에서 일상적인 모든정보가 재빨리 교환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집단적인 주민행동도 가능하게 된다. 실제 아파트단지의 교통문제 소각장문제, 환경보호운동 등은 이러한 여성들의 관계망에 기반을 둔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때로는 이러한 관계망을 통하여 아파트 가격 담합등을 비롯한 지역이기주의를 발휘하는 경우도 있다.

### 3. 공동주택의 비율에 의한 한국인의 주거양식 지역구분 시도

#### 1) 공동주택의 비율에 의한 시군별 분포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전국단위의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의 비율을 조사한 것이다. 조사범위는 전국 시, 군이며 이것을 백분율로 환산해 60~100%미만, 30~60%미만, 0~30%미만의 기준을 설정하여 조사하였다.

60~100%사이의 분포를 나타내는 시군은 첫째,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핵심지역과 주변지역(천안, 청주, 대전)들이다. 이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교통로의 발달과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이점으로 충청도인 청주, 천안, 대전지역을 연결하는 지역에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강원도에 인접한 경기도 일부지역(동두천, 포천, 양주, 파주, 안성, 가평, 여주, 이천)과 강원도 지역(춘천, 원주) 그리고 충청도 지역(아산, 연기, 청원, 진천, 음성, 제천, 충주)이 이에 포함된다.

30~60%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지방대도시인 전라도의 전주와 광주, 그리고 제철공업단지인 광양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며, 경상도에서는 부산을 중심으로 대규모 중화학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창원과 울산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또 지방대도시인 대구와 섬유, 전자공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 구미지역에서 높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경상도는 경주, 포항, 사천, 진주, 진해, 마산, 거제등의 지역이며, 전라도는 여수, 순천, 목포, 화순지역에서 30~60%의 비율을 나타낸다.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이 이에 해당된다.

0~30%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역은 경기도에서 양평과 가평 여주가 이에 해당되며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대부분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고성, 평창, 횡성, 양양, 인제, 양구, 철원, 홍천, 화천, 정선, 영월 등의 지역이 강원산간지역에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충청도에서는 보령, 당진, 공주, 예산, 태안, 논산, 금산, 홍성, 서천, 부여, 청양, 괴산, 보은, 영동, 단양, 옥천, 청원지역이 이에 해당되며, 경상도에서는 대부분의 지역이 이에 해당된다. 의령, 산청, 남해, 합천, 하동, 함양, 창녕, 고성, 함안, 거창, 밀양, 군위, 성주, 영양, 의성, 청도, 영덕, 예천, 봉화, 울릉, 청송, 고령, 상주, 문경, 울진등의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인구밀도도 낮으며, 수도권과도 먼 거리에 위치해 있고, 지형 경관상 험준한 지역이 많아 다세대주택 비율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전라도에서는 신안, 함평, 담양, 진도, 장흥, 완도, 곡성, 보성, 구례, 강진, 무안, 고흥, 해남, 장성, 영광, 나주, 영암,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등의 지역에서 낮은 비율을 나타내며 산간일부 지역과 도서지역에서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제외한 지역에서 0~30%의 낮은 비율을 나타낸다.

#### 2) 공동주택의 비율에 의한 한국인의 주거양식 지역구분 시도

위와 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공동주택 주거양식, 공동·단독주택 주거양식혼용지역, 단독주택 주거양식지역의 셋으로 나눌 수 있게 되는 데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동주택 주거양식지역

가평, 양평, 여주를 제외한 서울, 경기도 일대와 주변 북부 주요 도시지역으로 정리되며 그림1의 가지역이다. 1960년대 이후 1980년대까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등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진행된 산업화는 결국 이들 도시에 인구를 집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도시화 현상을 극대화시켰다. 따라서 한꺼번에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이라는 주거공간이 이들 도시를 중심으로 점차 들어서게 되었는데 이는 산업화, 도시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수백 년 동안 촌락에서 생활해온 이들이 지난 50년간의 짧은 기간 동안에 도시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촌락적인 생활이 혼용된 도시생활 방식이 전개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또한 1990년대 이후에는 도시의 인구 집중은 감소되었다고 하나 기존 대도시의 산업시설이 교외로 확산되면서 위성도시인 성남시, 안양시, 수원시, 부천시, 군포시 등에, 대도시에 인접한 이천시, 고양시, 용인시, 파주시, 김포시, 포천시 등에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공동주택이 늘어났다.

- (가) 서울-대전지역
- (나) 부산-대구-구미지역
- (다) 기타

#### (2) 공동·단독주택 주거양식 혼용지역

- (가)서울-대전주변지역
- (나)부산-대구-구미 주변지역
- (다)기타지역

#### (3) 단독주택 주거양식지역

- (가)강원지역
- (나)경상북부지역
- (다)충청-호남지역

### 4. 토론 및 문제점

이 연구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하여 한국인의 주거양식지역을 구분해 보고자 하였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지역구분이 행정경계, 자연 지리적 경계등을 기준으로 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실상을 알기 어려웠다. 최근에 등장한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은 우리의 실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어 공동주택에 의한 주거양식지역 구분 연구는 상당히 의미있다고 본다. (1) 공동주택 주거양식의 특징을 여러 문헌 조사에 의하여 살펴본 후, (2) 「인구 및 주택 조사」 자료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시군별 비율을 지도화한 다음 그 분포 패턴을 살펴보고 (3) 이에 의한 지역 구분을 시도하며 하고자 하였다. 「2000년 인구 및 주택조사」 자료에 나오는 시, 군별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의 비율을 조사하고 이를 지도화 하여 지역구분을 시도하였다. 공동주택 주거양식지역은 가. 서울-대전지역 나. 부산-대구-구미지역 다. 기타, 공동·단독주택 주거양식 혼용지역은 (가)서울-대전주변지역 (나)부산-대구-구미 주변지역 (다)기타지역, 단독주택 주거양식지역은 (가)강원지역 (나)경상북부지역 (다)충청-호남지역 등으로 구분되었다.

앞으로 이들 지역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공동주택 주거양식의 공간적인 특성, 공동 단독주택주거양식의 공간적인 특성, 및 단독주택 주거양식 지역의 공간적인 특성을 밝혀볼 필요가 있으며 그렇게 될 때 주거양식에 의한 지역구분이 진정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다.